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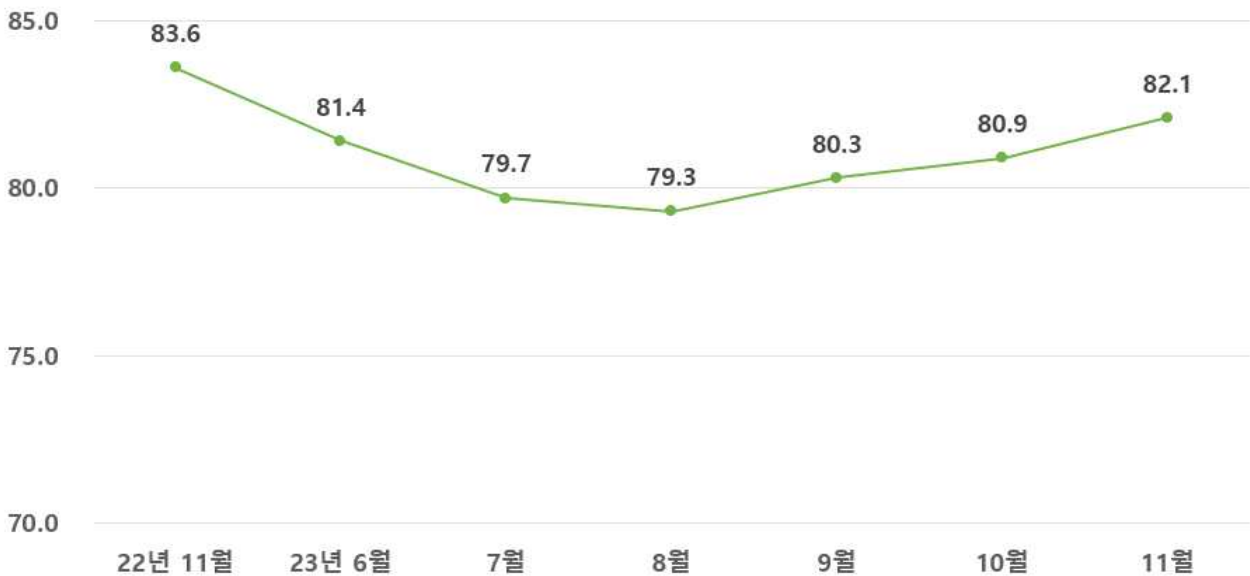
본 자료는 안산상공회의소 홈페이지(ansancci.korcham.net) > 새소식 > 보도자료에 수록되어 있음.

(‘23년 11월 기준) 안산지역 산업단지 가동률 “82.1%”, 전월 대비 1.2%p 상승

- 안산지역 생산액 전월 대비 2.2%, 고용인원 전월 대비 0.1% 증가
- 반도체, 전자부품, 기계류 등 주요 품목 수출액 증가

안산상공회의소(회장 이성호, 이하 안산상의)는 1월 29일 ‘최근 안산지역 경제동향(‘23.11월 기준)’을 발표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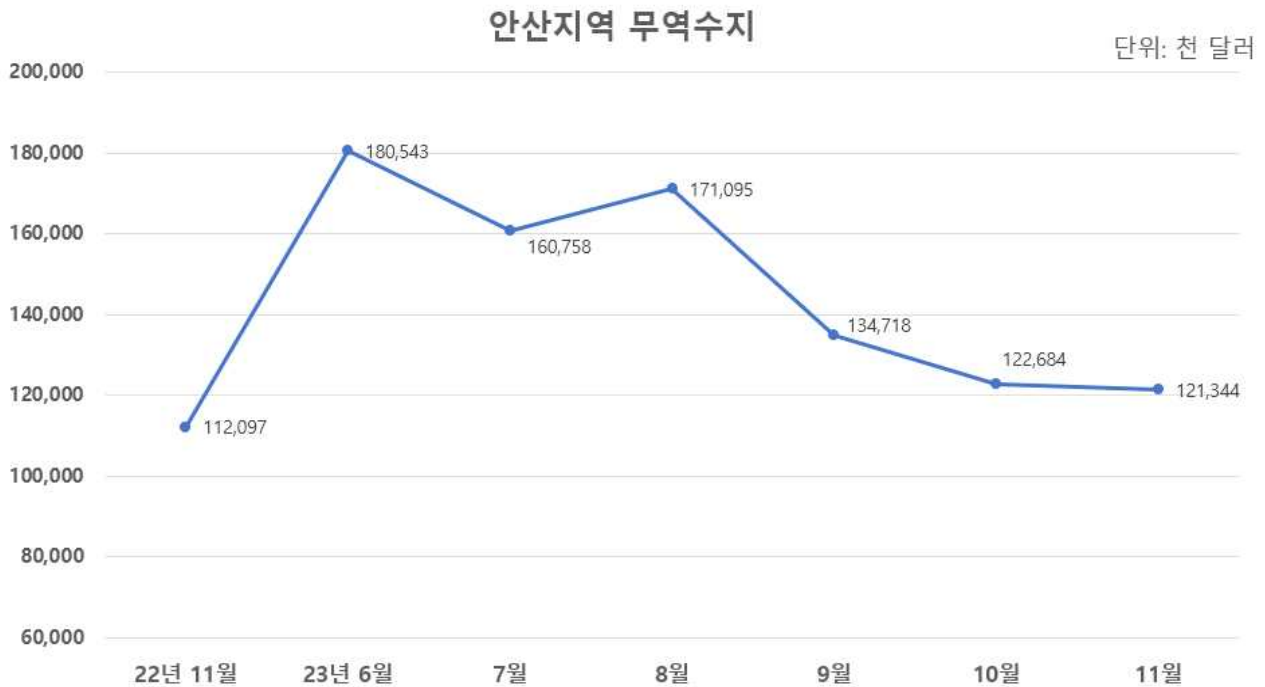
안산지역 국가산단 가동률(%)



안산지역 국가산업단지의 2023년 11월 가동률은 전월 대비 1.2%p 상승한 82.1%(전국 평균 가동률 83.5%)로 조사됐다. 가동업체 수는 11,960개사로 전월 대비 0.3% 감소, 전년 동월 대비 5.6% 증가했다. 생산액은 41,552억 원으로 전월 대비 2.2% 증가, 전년 동월 대비 0.2% 감소했다. 고용인원은 151,167명으로 전월 대비 0.1%, 전년 동월 대비 0.3%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.

2023년 11월 안산지역의 수출입 통관 현황을 살펴보면, 수출은 15,830건에 567백만 달러로

금액 기준 전월 대비 2.0% 증가, 전년 동월 대비 3.6% 감소했다. 수입은 60,063건에 446백만 달러로 금액 기준 전월 대비 7.6%, 전년 동월 대비 27.2% 증가했다. 2023년 11월 안산지역 무역수지는 121백만 달러로 전월 대비 1.1% 감소, 전년 동월 대비 8.2% 증가했다.



한국무역협회가 발표한 수출입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반도체, 전자부품, 기계 등 안산지역의 주요 품목 수출액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. 특히, 글로벌 경기 회복세와 IT 수요 증가의 영향으로 반도체의 수출액이 전년 동월 대비 12.9% 급증했다. 다만, 수입 증가율이 수출 증가율을 상회하며 전반적인 무역수지는 전월 대비 소폭 감소한 수치를 기록했다.

안산지역의 2023년 11월 예금은 155,153억 원으로 전월 대비 1.7% 증가했다. 2023년 10월 어음 교환액은 5,572억 원이며 부도액은 58억 원, 부도율은 1.05%를 기록했다. 어음 교환액이 증가하는 이유로는 수입 증가, 대출 및 유동자금 조달, 경기 상황 등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개별 기업의 상황과 환경에 따라 어음 발행의 이유는 다를 수 있다.

자세한 사항은 안산상의 홈페이지(<http://ansancci.korcham.net>) '조사/건의'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.

※ <붙임> 최근 안산지역 경제동향('23년 11월 기준) 보고서 1부. 끝.